

OECD DAC 동향

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

OECD DAC 동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에서 논의되는 최신 개발협력 동향과 DAC 주요 회원국의 개발원조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, 매 분기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에서 작성 및 배포합니다.

I. Development Issue

1. OECD DAC 각료급회의(HLM) 주요 결과 (2016. 2. 18-19)
2. 2016 OECD 이사회 연례 개발회의 주요 결과 (2016. 1. 19)

II. DAC 회원국 동향

1. 영국 개발협력 예산 정책의 변화
2. 新미주투자공사(New IIC) 출범

III. OECD DAC 2/4분기 일정



I. Development Issue

1. 2016 OECD DAC 각료급회의(HLM) 주요 내용 (2016. 2. 18 - 19)

- ◇ OECD DAC은 2016년 2월 18-19일, 파리 OECD 본부에서 각료급회의(HLM)를 개최하고, 결과문서인 HLM 커뮤니케를 발표함.
- ◇ 본 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논의되었으며, 민간금융수단(PSI) 활용의 ODA 계상, 평화·안보 활동의 ODA 측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.
 - 금번 HLM은 DAC 통계체계 현대화와 개발재원 측정에 대한 회원국 합의 이후 개최된 첫 회의였으며,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와 그 이행수단을 논의한 2015년 7월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 및 9월 UN 지속가능개발회의 결과를 적용·발전시킨 데 의의가 있음.

가. 배경

- OECD DAC은 2016년 2월 18-19일, 파리 OECD 본부에서 각료급회의(High Level Meeting, HLM)를 개최하고, 결과문서인 HLM 커뮤니케(communiqué)를 발표함.
- ※ DAC HLM은 DAC 회원국 각료급 인사,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 등이 참석하는 DAC의 최상급회의로 DAC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의 지침 및 권고를 수행하며, OECD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급 이사회(Ministerial Council Meeting, MCM)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

나. 주요 논의 내용

- (총평) 본 회의에서는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이 논의되었으며, 평화·안보 활동의 ODA 측정, 민간금융수단(Private Sector Instrument, PSI) 활용의 ODA 계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.
- (HLM 커뮤니케 채택) 다음의 주요 사항을 HLM에서 논의했으며, 논의결과를 담은 HLM 커뮤니케를 채택

(1) PSI의 ODA 측정

- (논의배경) 2014 HLM 당시 현 ODA 통계체계가 공적부문의 PSI 활용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공론화됨.
- (일반원칙) 공적부문의 PSI 활용 노력을 ODA로 측정하되, 이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(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, TOSSD)*으로 보고

* TOSSD 도입 전까지 현행 기타공적자금(Other Official Flow, OOF) 보고체계 유지

- (측정방식) 각 공적기관(Public Vehicle)*은 ODA 측정방식을 기관중심 또는 수단중심 접근방식 중 자율 선택해 적용하되, 보고방식 변경 시 사무국 앞 사전통지 및 사무국 확인절차 이행

* 공적기관(Public Vehicle) : 공여국 정부가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발금융기관(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, DFI), 투자목적 펀드, 특수목적 프로그램 등을 통칭

- 양 접근방식의 병행으로 각 공여국 PSI 활용 노력의 비교 가능성 확보와 ODA 통계 과대계상 방지가 기대되며, 비교가능성 유지 차원에서 기관중심 보고시에도 수단중심 측정결과를 참고형식(memorandum)으로 보고 의무 부여
- 향후 2년간 위 측정체계 운영 후 측정방식 조정여부 검토 예정
- 보고방식 선택시 최소유지기간(lock-in period)을 설정하되, 구체적 기간은 추후 논의

※ 기관중심 접근방식 : 공적기관에 유입되는 자금 기준 측정

수단중심 접근방식 : 공적기관이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수단별 측정

[그림 1] 기관중심 접근방식과 수단중심 접근방식 설명



- (이행절차) 모든 공여국은 ① 기관별 ODA 적격성(개발목적성 및 자금의 추가성)* 평가, ② 개별사업자금 흐름의 OECD DAC 보고, ③ 투명성 규정 및 정보공개원칙에 기반한 PSI 정보 공개 등 3개 절차 준수 필요

* PSI의 양허성 판단 기준으로, 민간금융이 공적부문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진출 불가능한 시장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

(2) 평화·안보 활동의 ODA 통계보고 지침 개정

- (논의배경)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(preconditions for development)으로서 평화·안보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, ODA 인정범위 개정 논의가 본격화
 - 2014년 HLM에서 DAC 통계체계 내 평화구축(peace-building) 및 국가형성(state-building) 노력 반영을 결의함.
 - 2015년 INCAF*/통계작업반 공동작업팀을 구성, 기술적 논의를 진행했으며, 2016년 HLM에서 개정안을 최종 합의함.
- (논의결과) 인도적 지원·개발협력 활동과 관련된 군 장비 동원, 수원국 군 인력 훈련, 경찰훈련 및 일상 치안활동 지원, 폭력적 극단주의(violent extremism)* 예방활동의 ODA 적격성 인정

* 분쟁과 평화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 (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)

- * 개인 및 조직의 이념·종교·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폭력 사용을 지지하는 신념 혹은 행위로, 테러리즘 및 집단 폭력 등이 구체적 사례
- 군사력 강화 목적으로 오용 가능한 군 장비 및 서비스 자금 지원과 對테러 활동 등은 ODA 불인정이 원칙이나, 수원국 주도 개발(ownership)을 위한 선행조건인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(Countering Violent Extremism, CVE) 활동은 ODA로 인정

- 기존 지침 내 ODA 불인정 대상이었던 '군에 의한 무기 수거 및 폐기'도 ODA로 인정

(3) TOSSD 측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작업 승인

- (논의배경) 개발주체 및 재원 다양화, 재원규모 확대 등 개발재원 환경 변화에 따라 모든 개발재원을 측정하고, 재원의 효율성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성 확대
 - TOSSD 기본 원칙은 2014년 HLM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, 2015년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에서 UN의 TOSSD 논의 참여가 결정됨.
- (논의결과) TOSSD 이행체계(안) 구축 작업 승인
 - TOSSD가 DAC를 넘어 국제사회 전반에서 포괄 적용이 가능하도록 UN과의 연계 강조
- (향후일정) 2019년까지 TOSSD 보고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며, TOSSD 측정방식 합의를 조기 실현(2016년 말)하기 위해 통계작업반 내 특별작업반(Task Team) 설치가 제안되기도 함.
 - UN 경제사회이사회(ECOSOC)에서 TOSSD 개발현황 검토 (2016년 4~7월)
 - DAC 고위관리회의(Senior Level Meeting, SLM)에서 TOSSD 측정·모니터링 체계(안) 마련 (2016년 10월)
 - 참가국 전원 대상 시범측정 개시 (2017년)
 - UN HLPF**에서 TOSSD 보고방식 채택 (2019년)

* 고위급정치포럼 (High Level Political Forum)

(4) 혼합금융(Blended Finance) 지침 개발작업 승인

- (주요내용) 2016년까지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혼합금융 지침(work program)*을 개발하는 데 합의

* 혼합금융 개발효과 확대 위한 모범사례(best practice) 및 지침(guidance) 포함

- ODA는 지속가능개발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s) 이행재원 조달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, ODA의 촉매적 역할이 강조됨.
- 지속적인 혼합금융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, DAC의 혼합금융 관련 지침 수립에 찬성하는 동시에 완화된 적격기준을 제시해 新재원 마련을 촉진할 것을 요청
- 혼합금융 관련 논의는 활발한 반면, 실제 도입 및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원인 분석 필요

(5) 난민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

- (논의배경) 공여국 내 난민위기 대응비용이 급증해 ODA 예산 축소가 우려되며, 재원 활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 대두
 - 공여국 내 난민지원 비용 ODA 보고 일관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
- (주요내용) 통계지침 개정에 앞서 현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으며, 난민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.

(6)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 및 효과적 글로벌파트너십 강조

- (논의배경) DAC의 개발효과성 원칙,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(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, GPEDC)의 SDGs 기여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으나, UN의 SDGs 이행점검과의 연계 등 실질적 측면에서 한계 지적
 - GPEDC 이행점검을 위한 케냐 장관급회의(2016년 11월) 이전 정치적 모멘텀 마련 필요성 제기
- (논의결과) 개발효과성 원칙이 SDGs 이행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며, GPEDC가 다양한 개발주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파트너십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강화 필요성에 공감

* 2016년 4월 UN 개발협력포럼(Development Cooperation Forum, DCF) 고위급 심포지움에서 UN DCF와 GPEDC 간 업무분장 협의 예정

□ **(DAC 역할 재정립)**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이행을 위한 DAC의 역할을 재정립하고, 다음 사항을 강조

-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
- 대중 전반의 SDGs 이해증진
- 범정부적 접근 및 정책일관성 강화
- 新이행재원 동원
-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

□ **(DAC 혁신 노력)** 신흥공여국 등 개발협력 주체 증가, 복합적인 新개발과제 직면 등 다양한 개발환경 변화를 포용하고, 2030 의제 달성 기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DAC 혁신 고위급패널 설치

- (구성) DAC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로 이루어진 패널 구성
- (일정) 과업범위 확정(2016년 3월) → 패널 구성(2016년 4월) → DAC 혁신안 보고(2016년 12월)
- (과제) DAC의 지리적 포용성 강화, 민관파트너십 제고방안 마련 등
-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, SDGs, COP21(Conference of Parties)과 상통하는 혁신안 마련 주력

다. 시사점

□ **(SDGs 주류화)** SDGs 이행을 위한 각 분야 정책지침 및 개발재원 마련방안 등 다양한 SDGs 주류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됨.

- DAC 통계 현대화와 개발재원 측정 합의 후 개최된 첫 회의였으며, SDGs와 이행수단을 논의한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 및 UN 지속가능개발회의의 결과를 적용·발전한 의의가 있음.
- DAC 내 SDGs 이행 논의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SDGs 주류화 및 이행체제 마련 필요

- **(PSI의 ODA 측정)** ODA의 촉매 역할 강화 및 개발재원 흐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 - 세부 기준 협의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국제사회 논의 동향 파악 및 우리측 의견 표명 필요
- **(혼합금융)** 개발효과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 혼합금융 등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이 심화될 전망
 - 혼합금융 효과 및 시행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필요
- **(DAC 혁신 노력)** 선진 공여국의 ODA 비중은 감소 추세인 한편, UN이 SDGs·개발재원 등 개발협력 의제를 주도하면서 DAC 영향력 제고를 위한 혁신 노력 본격화
 - 향후 DAC 혁신 방향에 대한 우리측 의견 표명 필요

2. 2016 OECD 이사회 연례 개발회의 주요 결과 (2016. 1. 19)

- ◇ OECD는 2016년 1월 20일,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이사회 연례 개발회의를 개최하고, SDGs 이행전략 시행 및 재원동원을 위한 OECD의 기여방안을 논의함.
 - 동 회의는 SDGs 이행을 위한 OECD의 역할 및 주요 분야 청사진을 제시했으며, 다양한 재원동원을 위한 OECD 및 각국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명함.

가. 주요 토의 내용

(1) SDGs 이행전략

- **(일반원칙)** SDGs가 선진국·개도국에 보편 적용되고(universal),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며(transformative), 경제·사회·환경 분야를 아우르는(integrated) 개발목표임을 고려한 정책지침 및 권고, 조직 정비가 필요하며, OECD 비교우위에 기반한 SDGs 기여방안 심화에 주력

-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투자환경 조성(Enabling environment), 조세시스템 구축, 통계체계 강화, 녹색재원 확충 등이 요구됨.
- OECD는 UN과 역할 중복 없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, 통계, 개발재원 동원, 조세,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비교우위에 기반한 SDGs 기여방안을 심화하는 한편, UN과의 협력 강화 주력
-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해 지식공유·모범사례 전파, 역량강화 지원 등을 지속

※ DAC 의장은 OECD DAC가 일부 원조 공여국의 모임 성격을 넘어 모든 공여국, 수혜국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진화해야 함을 강조

- (향후 계획) OECD 행동계획안(OECD Action Plan on the SDGs)에 대한 각 부문 위원회(committee) 검토 → 이사회 검토(2016년 3·4월) → 각료이사회(ministerial council meeting) 상정(2016년 6월)

(2) SDGs 이행재원 동원

- (논의배경) 2030 개발의제 달성을 위해 공공·민간 부문의 다양한 재원동원이 필요하며, 개도국 개발재원 마련에 있어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효과적 민간재원 동원 필요성 증가
- (일반원칙) ODA 개념 현대화, TOSSD 개념 도입 등 SDGs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DAC 주요 합의사항에 기반해 조세·투자·불법재원흐름 방지 등 분야에서의 OECD 기여 역할 심화

나. 시사점

- 현재 국제사회는 SDGs 이행전략 수립 및 조직 정비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, 향후 국내 정책에 미칠 영향 역시 확대될 전망
- SDGs 이행을 위해 각 분야 정책의 정합성(coherence) 제고가 강조 추세인 만큼, 각 분야 정책 조화 및 공조 강화가 필요

II. DAC 회원국 동향

1. 영국 新개발협력 정책기조 발표

- ◇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, 5개년 예산지출계획과 新원조전략 보고서를 발표함.
- 복합적인 新개발과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가운데, 평화·안보 실현 및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 강조
- 긴축재정 기조 하 다양한 예산효율 제고방안 마련

가. 총 평

-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, 5개년 예산지출계획(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2016 - 2020)과 新원조전략 보고서인 “국익추구 중심의 국제문제 대응(UK aid: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)”을 발표함.
- 동 예산지출계획 및 보고서는 향후 英 정부의 대외원조 운영지침, 중점원조분야, 이행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함.
 - 대량난민유입, 전염병, 테러 위협, 기후변화 등 新국제문제 대응, 경제협력 강화 등 원조를 통한 국익 추구 및 외교정책 실현을 강조
 - 적격성심사(value for money)* 강화 기조 하에서 일반예산지원(General Budget Support)** 폐지, DFID 행정비용 감축 등 다양한 예산효율 강화조치를 마련함.

* 개별사업의 투입비용 대비 효과, 정책목표 부합 및 실현 정도 등을 심사·평가한 후, 부적격 판정시 수정 혹은 폐기

** 수원국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, 재원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별 예산지원(Sector Budget Support)과 구분

나. ODA 예산규모 및 지출 분야

□ (예산규모) 연간 예산 ODA/GNI 0.7% 준수 공약이 재확인됨.

- 중기 ODA 예산은 총 740억 파운드로 책정되었으며(2015/16~2019/20 회계연도 기준), 이에 따라 연간 예산은 2015/16년 111억 파운드에서 2019/20년 163억 파운드로 증가할 전망

□ (지출분야) 평화·안보, 경제협력, 기후변화, 전염병 등이며, 동 문제 대응을 위한 기금을 신설 및 확대함.

- (평화·안보) 아프리카·중동 정세 악화로 난민 대량유입 및 초국가적 범죄 증가가 심화됨에 따라 평화·안보와 개발협력 의제 간 연계 강조
 - 국가안전보장회의(National Security Council, NSC)의 정세불안 국가 및 지역 대응전략과의 조화 실현
 - 분쟁·안정화·안보기금(Conflict, Stability and Security Fund, CSSF)을 13억 파운드로 확대하고(2019/20년), 북아프리카 지역을 추가 지원
 - DFID·외교부·국방부가 공동 참여하는 개발협력 사업 지원
- (기후변화)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대 및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
 -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58억 파운드로 확대(2016/20년), DFID 기후 금융 프로그램 등 실시
 - 기후금융 규모를 58억 파운드로 확대(2016/20년), 對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사업 지원
- (경제협력) 다변화하는 국내·국제개발환경 대응을 위해 민간 부문투자, 민관협력 활성화 등 경제협력 강조
 - 영연방개발공사(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, CDC) 자본금을 보충(7.35억 파운드), 對개도국 투자규모 확대
 - 번영기금(Prosperity Fund)을 신규 편성(2019/20년까지 13억 파운드), 개도국 성장기반 구축 및 정부역량 강화 지원

- 에너지 · 인프라 · 도시개발 · 상업농업(commercial agriculture) 분야
민관협력 확대 및 금융 인프라 구축 지원
- (전염병) 전염병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Ross 기금 조성
(2019/20년까지 10억 파운드)

다. 예산지출방식 변화

- (공동기금 조성 · 확대) 복합적인 新개발과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
범부처 협력증진 목적의 공동기금 조성 및 확대
 - 기후기금(DFID-에너지 · 기후변화부-농업부 공동집행)
 - 분쟁 · 안정화 · 안보기금(DFID-국방부-내무부-법무부 등)
 - 번영기금(외교부 외)
- (예산효율 강화) 긴축재정 기조 하 다양한 예산효율 제고방안 마련
 - (DFID 효율화) DFID의 일반예산지원(General Budget Support)
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, 행정비용 감축 실시(2020년까지 총
4억 파운드)
 - (경쟁예산체제 도입) 보수당 단독집권(2015년 5월) 후 기존 DFID
주도 예산집행방식을 대체하는 부처간 ODA 예산경쟁체제 도입
 - 과거 DFID는 英 ODA 예산의 85% 이상을 안정적으로 집행
 - 부처별 사업계획은 재무부와 인프라 · 프로젝트 관리부(Infrastructure
and Project Authority)가 심사, DFID는 ODA 적격성 여부 의견 제시
및 반려(ODA 적격성 미달시) 권한 보유

2. 新 미주투자공사(New IIC) 출범

◇ 미주개발은행(IDB) 민간부문 지원부서와 미주투자공사(IIC)의 통합으로 설립된 新 미주투자공사(New IIC)가 2016년 1월 공식 출범함.

- 민간부문 전담 조직 출범으로 향후 사업운영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가 예상되며, 다양한 금융협력이 이루어질 예정
- 2015년 12월 IDB 이사회에서 한국의 IIC 지분 확대안*이 의결된 만큼 우리 정부는 New IIC 출범을 IDB 내 발언권 제고 및 자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 계기로 삼을 계획

* 현지 1.25억불 출자 예정으로, 출자 이후 지분율은 4%로 확대되어 전체 48개 회원국 (역내 28, 역외 20) 중 역외 2위, 전체 7위로 부상할 예정

가. New IIC 출범 개요

- IDB 민간부문 지원부서와 기존 IIC의 통합으로 설립된 New IIC 가 2016년 1월 공식 출범함.
- (설립계기) IDB 회원국들은 민간부문 지원 촉진을 위해 2015년 3월 부산 IDB/ICC 연차총회에서 New IIC 설립에 합의함.
- (설립목적) 중남미·카리브해 지역 민간부문 지원
 - 기존 IIC가 중소기업 지원만을 전담했다면, New IIC는 모든 민간부문 지원을 통할
- (총 자본규모) 총 자본금은 20.3억불로, New ICC는 자본금 확대를 위해 13.05억불을 증자하는 한편 IDB로부터 7.25억불을 이전
- (기능) 민간부문에 대한 직·간접 Non-sovereign 금융지원*

* 직접금융지원 : 對민간기업 투·융자
간접금융지원 : 기업금융기관 대출

- (조직) IDB 총재가 상임이사회의 당연 의장직을 수행하며, 이사(General Manager) 경영체제 하 5개 부(Department), 14개 국(Division), 7개 팀(Department 직속)으로 구성

나. 기대효과

- IDB 그룹내 민간부문 전담 조직 출범으로 향후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가 예상되며, 다양한 역내 금융협력 전개 예상
 - New IIC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, 국영기업 등 민간부문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기술지원·대출·보증·지분투자 등 다양한 민간지원 수단 보유
 - 결과중심·전문성·책임성·수익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 문화(private sector culture)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
 - New IIC의 설립으로 IDB 그룹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전담채널을 확립하고 각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면서, 향후 단순한 협조음자 뿐 아니라 민관협력(Public-Private Partnership, PPP) 등 다양한 역내 금융협력 가능

다. 시사점

- 2015년 12월 IDB 이사회에서 한국의 New IIC 지분 확대안을 포함한 New IIC 지분 배분안이 의결된 바 있음.
 - 한국은 New IIC에 1.25억불을 2016년 이후 7년에 걸쳐 분할 출자할 계획임.
 - 본 출자를 통해 한국의 지분율은 4%로 확대(기존 0.221%)되어 48개 New IIC 회원국(역내 28, 역외 20개 국) 중 역외 2위, 전체 7위 지분 보유국으로 부상할 예정
- ※ New IIC 주요국 지분 구성 (예정)
- 역내 회원국 : 미국(15%), 브라질·아르헨티나(각 11.4%), 멕시코(7.3%), 베네수엘라(6.1%), 캐나다(3.6%)
 - 역외 회원국 : 중국(4.5%), 한국·스페인(각 4.0%), 일본(3.5%), 이탈리아(2.8%)

□ 우리 정부는 확대된 New IIC 지분을 기반으로 IDB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, 우리기업 중남미 진출 확대 계기로 삼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임.

○ New IIC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우리기업 중남미 진출 축진이 예상됨.




-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경제협력이 심화*된 바 있음.

* 對중남미 교역(2005년 220억불 → 2015년 307억불) 및 투자(2005년 6억불 → 2015년 65억불) 확대

○ 타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New IIC 이사국에 진출하는 등 IDB 그룹내 한국의 발언권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

- 한국의 기존 IIC 지분율은 0.221%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.

III. OECD DAC 2/4분기 일정

	개도국 통계역량 강화(PARIS21) 연례회의
	개발협력포럼(Development Cooperation Forum)
	타이드워터(Tidewater) 회의